
제46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1.08.~11.1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19. 11. 08.	시청률	0.013

【총 평】

오늘은 서울 27개동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그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윤석천 경제평론가가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알아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재건축·재개발구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는데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매우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수요자들의 성급한 매매를 막아 수요가 감소해 어느 정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이론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선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풍선효과와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 우려의 목소리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따로 자막처리 해가면서 강조했는데 분양가 회피시도가 발견되면 추가지정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기대효과는?
 - 공급 위축에 대한 시장 전망은?
 -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을 해제 및 전망은?
- 경제&이슈
 - KDI, KTB, IMF에 내놓은 2020년 경제 상황을 비교해가며 전망해봤다.
- 알뜰신잡
 - 연령별 무료 건강 검진에 대해 살펴봤다.

【참고사항】

부동산 상한제는 부동산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단골 소재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사실 참신한 아이템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후에는 부동산 카테고리내에서도 다른 주제를 많이 발굴해서 다루어주면 좋겠다. 각 주제별로 전문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풍선효과나 핀셋 지정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물론 단어만으로 뜻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진행자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명을 덧붙인 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거나 자막으로 정확한 뜻을 표기하는 것도 좋겠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1. 09.	시청률	0.219

【총 평】

이번 6회에서 다룬 소식은 '붕괴 후 방치된 교량, 안전 신문고 모니터링 후 개선과 '경관 녹지 구조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였다. '붕괴 후 방치된 교량, 안전 신문고 모니터링 후 개선은 1년 간 방치되어 마을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정마을 문제를 되짚어 보았고 '경관 녹지 구조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교통 불편 문제를 다뤘다.

특히, 예산 확보와 기관 간의 입장차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니 만큼, 기자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취재 기자의 노고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구성 및 내용】

생활 속 주민의 불편사항을 관련기관의 조정으로 해결해나가는 순기능을 보여주는 기획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홍보 역할을 제고시킨다.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도 솔루션 노하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획이었다.

취재기자의 출연과 기자 진행자의 토크 형태의 진행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문제점, 핵심 이슈의 논의 전개과정, 갈등의 해결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포맷이 설득력과 흡인력을 높였다. 취재기자의 현장 취재와 출연 및 현장 영상, 사진 제시와 설명 등의 구성이 임장감과 핵심 이슈 이해도를 제고했다.

■ 붕괴 후 방치된 교량, 안전신문고 모니터링 후 개선

지난 해 여름 전남 나주 내정마을 앞의 교량이 많은 비로 붕괴 후 약 1년간 방치되었고 행안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도 6개월간 방치되었다. 교량 보수 주체는 나주시청으로 붕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것은 보수보다 교량 신축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등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행안부를 통해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았는데 날씨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보행자, 차량 뒤엉킨 도로, 경관 녹지 활용으로 해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아파트 앞 도로는 보행로가 없으며 보행자는 차를 피해 도로를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나 보행자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관할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녹지에서의 전신주 관리주체인 한전에서는 전신주 이전, 도로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교통안전대책 마련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유관기관 별 협업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국민기획 과학특		
방송일자	2019. 11. 10.	시청률	0.026

【총 평】

"유전자 치료시대 - 의료가 달라진다, 게놈(Genom)혁명"이라는 주제로 인천대 융합과학기술원 초빙교수인 이민섭 박사가 출연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한 내용이 많아 더욱 흥미로웠다. 유전자 검사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여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맞춤 치료를 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공감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세계적인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 유전력 유방암 발병을 예방하고자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내용을 화제성 있게 전하고 오늘 살펴볼 주제를 부각시켜 관심도를 높였는데 적절했다.

‘게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인간게놈, 개인게놈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해 일반상식 습득에 유용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정보가 98% 이상 일치하고, 인간 개인 대 개인의 유전자 차이는 0.1%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의 다양성과 특징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질병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신약개발이나 진단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향후 유전체 분석과 관련연구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였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아 게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는 분석은 처음 접한 정보로 매우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게놈 연구가 단지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질병의 적절한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 게놈의 정의와 인간 게놈 프로젝트

- 게놈이 중요한 이유와 후성 유전체에 관한 이야기까지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의학 분야에서의 게놈의 필요성과 활용방법

- 호모 헌드레드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요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게놈 프로젝트의 의학 분야 접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개인 맞춤형 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효과를 전했다.

■ 유전자 분석의 한계와 보완책

- 유전자의 분석과 보관 방법상의 문제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인 문제까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9. 11. 10.	시청률	0.021

【총 평】

늦가을 수확철을 맞아 1차 산업에 머물렀던 전통적인 우리농업이 융복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본 이번 11회 방송에서는 '팜 농업 고부가가치로 경쟁력을 키우다'편을 소개하였다.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1차 산업적인 성격만 가진 농가가 아니라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마케팅 등이 융복합된 6차산업으로서의 농가를 조명하여 향후 트렌드에 적합한 농가의 육성 지원 정책의 현장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6차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가공,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으로 1차 산업에 비해 3배 수익을 더 올리는 현장이 소개되었고, 6차 산업 농가 탐방, 대형마트로 판로개척, 명인과 함께 하는 하루, 6차 산업 스쿨링 현장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부분이 강점이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해외통신원 남영준씨가 암스테르담 '바키피슨' 농장을 취재하여 6차 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농업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구성 및 내용】

오늘 구성은 6차복합산업이 무엇인지, 6차산업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었다.

- 경기도 파주 쇠골마을 6차산업 인증 귀한농부학교 농가방문
 - 파주 귀한농부학교는 생산, 가공, 판매, 체험학교 등이 이뤄지는 6차산업 인증 농가로 배 및 고구마 수확, 생산, 농작물 수확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6차산업 판로 개척과 대형마트 안테나샵
 - 경기도 6차산업 인증농가의 다양한 제품들을 대형마트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해당 마트의 안테나샵을 통해 참여 농가는 수익창출 및 판로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청국장 명인 농가 방문
 - 6차산업 인증 농가인 안성시 일죽면의 청국장 명인 농원을 방문하였다.
- 해외통신원의 네덜란드의 6차산업 농가 소개
 - 남영준 해외통신원이 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바키피슨 농장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자전거를 타고 농장 방문과 수확을 통해 농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바키피슨' 제도가 주목을 끌었다.

【참고사항】

09:14 정형화되어있어서, 09:25 토핑도하고 등 띄어쓰기에 유의 필요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19. 11. 12.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는 국민기자단이 전국 방방곳곳,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생활정보, 정책정보, 문화예술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국민의 시선으로 전달해 기획의도를 살리고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콘텐츠로 정착됐다고 보여진다.

오늘 <국민리포트>는 행복한 노년 '카네이션 마을', 장벽 붕괴 30주년...베를린서 '한반도 평화'노래, 금연구역 유명무실...곳곳에 담배꽂초, 1950년대 한국영화...전후 새로운 시대를 열다, '어른 위한 그림책' 전시와 낭독 공연 눈길을 방송하였다.

【구성 및 내용】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열린 한반도 평화음악회, 한국영화 100년을 겸해 전시된 1950년대 한국영화 전시회 등 계기성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는 '시의성' 기획이 돋보인다. 금연구역에서 마구 흡연하는 무질서 현장을 보여준 '고발성'도 주목됐다.

'금연구역 유명무실' 리포트는 금연구역인데도 배수구 안과 도로에 마구 버려진 담배꽂초를 보여주며 시민의식을 촉구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과태료 부과액을 올려야 되고 단속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1950년대 한국영화는 보기 힘든 1950년대 한국영화 '운명의 손' 등 장면을 자료영상으로 다시 보는 반가움이 컸다. 김종원 원로영화평론가, 유명감독 출신 이장호 한국영화100년 기념사업추진위 회장의 인터뷰 내용도 관록만큼 값진 메시지를 담았다.

글로벌리포트는 2차 대전 폭격으로 '전쟁과 평화'의 상징물이 된 독일 베를린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연주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한 청년 유학생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

- 카네이션 마을...행복한 노년에 일자리 제공까지
- 글로벌 리포트 - 장벽 붕괴 30주년, 베를린서 '한반도 평화'노래
- '금연구역'유명무실...곳곳에 담배꽂초
- 1950년대 한국 영화...전후 새로운 시대를 열다
- '어른 위한 그림책' 전시와 낭독 공연 눈길

【참고사항】

경기도 카네이션 마을 뉴스는 2년 전에 시행한 경기도 어르신 친화 정책이다. 카네이션 마을은 일자리와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어르신 친화 정책을 위해 경기도와 해당 구 혹은 군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정책이다. 2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확대 시행되고 있는지, 수익 활동은 어떤지, 지역 특색은 무엇인지, 어떤 부작용이 생겼고 보완은 무엇인지를 담았어야 했다.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1. 12.	시청률	0.017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지자체 현금성 복지 증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중복 지급’ 등 복지 포퓰리즘 차원에서 현금 퍼주기성 복지정책과 관련한 기사 등에 대한 팩트체크를 다루었다. 특히, 국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많은 시청자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요소의 팩트를 잘 체크해서 의혹을 덜어주었다. 최근 2년간의 현금성 복지 수준의 증가폭을 설명할 때도 그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잘 밝혀서 설득력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방향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지자체 현금성 복지 증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중복 지급’ 등 복지 포퓰리즘 차원에서 현금 퍼주기성 복지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윤정한 과장이 출연해 기사에 제기된 언론의 의문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주었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을 OECD국가들과 비교한 부분과 이들이 왜 현금성 복지 지출을 높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기사의 내용이 과도하고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낸 내용 구성은 효과적이었다.

■ 오늘의 기사

- 현금성 복지 증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사로 먼저 소개했다.

■ 댓글 옥신각신

- 현금성 복지 증가에 대한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과 세금낭비라는 부정적인 댓글을 차례로 소개했다.

■ 팩트체크 1.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증가?

- 지난 2년간의 현금성 복지 증가율을 분석하고 복지가 증가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 팩트체크 2. 중앙-지방 정부 동일 대상에 중복 지급?

- 장수수당, 효도수당, 어르신 수당을 예로 들어가며 중복 지급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중복되는 현금성 급여와 관련하여 유사할 경우 재협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재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수준을 줄이는 것인지, 만약 이미 지급된 현금성 급여 처리는 어찌 되는지 등 재협의 원칙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프로그램	KTV 쟁점토론		
방송일자	2019. 11. 14.	시청률	0.004

【총 평】

이번 방송 주제는 ‘노사상생 지역형 일자리 성공하려면?’으로 지역형 일자리가 상생경제의 활력소가 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형 일자리 창출 새 모델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노동기본권에 문제없는지 등 상생형 지역일 자리를 둘러싼 논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오늘 토론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박승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민주노총정책국장, 박위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과장 등 네 명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어 밀양, 대구, 구미, 강원, 군산에서도 상생의 지역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으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쟁점토론>에서 상생형 일 자리의 ‘노동기본권 문제’와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 기획은 적절하고 의미가 컸다.

【구성 및 내용】

오늘 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노사 상생 지역형일자리 성공하려면?’이었고 주요 쟁점은 첫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나?” 둘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동기본권 문제없나?” 셋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하려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중요성을 토론자들이 나눔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가능성과 성공 그리고 안정성을 위한 정부-국회-노-사-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알찬 시간이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1월 광주, 6월 밀양·대구, 7월 구미, 8월 강원, 10월 군산까지 2조를 투자하고 6만 명 고용효과를 노린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이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해법을 차근차근 다룬 점은 유익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자 입을 통해서 장황하게 언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를 추가해서 보여줬더라면 토론 몰입도를 높여 주었을 것 같다.

특히, 패널 구성에서 ‘노(노동조합)+사(기업가 출신)+정(중앙정부&지방행정)’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뤄져, 다각적이고 완성도 있는 토론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김만흠 진행자는 토론에 적극 개입하고 교통정리에 나서 주제에 접근하는 진행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 효율적인 토론도 가능했다.

“큰 틀에서 노사 협력, 정부지원으로 지역형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한다”는 클로징 멘트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프로그램	KTV 특집 (문재인정부 2년반 대한민국 경제, 지금)		
방송일자	2019. 11. 14.	시청률	0.006

【총 평】

문재인 정부 2년반의 역사를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는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한 점이 눈에 띄고 특히 관계 전문가의 정확한 코멘트는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준비해서 신빙성을 제공한 뒤에 높이 평가해서 설득력을 높인 점이 인상적이다.

최근에는 여러 채널의 다양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비판의 근거까지 MC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준 것도 꽤 의미가 있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확장판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구성 및 내용】

정부정책을 외국정책과 대비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해 입체감이 있었고 또한 논리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경제에서 공정경제까지 정책의 내용만을 강조하지 않고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지향점과 핵심가치를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IMF 신임총재의 말을 인용해 ‘재정확대’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2020년은 ‘세계경제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 서민경제 불씨는?

-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와 사회적 경제, 상생형 일자리, 제2의 벤처붐 등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온 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 우리 경제 다시보기

- 현재 외풍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의 실체를 분석하고 IMF등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그려보았으며 신남방 국가로의 경제 확장 등 미래를 책임질 각종 경제 정책을 살펴보았다.

■ 다시 시작이다!

- 전문가들이 보는 지금까지의 평가와 남은 2년반의 경제 과제를 소개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참고사항】

방송자막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 서민경제 불씨는?’에서 ‘서민경제 살릴 불씨는?’이라고 했어야 했고 ‘경제정책, 메시지의 실패’는 메시지 자체의 실패가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했어야 했다.